

한국농촌의 생활의 질 지표개발 및 진단

— 지역개발 지표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¹⁾

최은숙 · 한경혜 · 박양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
— Comprehensive Approach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Indicator —

Choi, Eun Sook · Han, Gyoung Hae · Park, Yaung Ja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

I. 서 론

최근 팽배되고 있는 우리 농촌의 위기의식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것으로, 풍요롭고 발전하는 농촌을 위해서는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서두르는 한편 농촌복지사업을 시급히 확대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지역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는 인식의 증가와 함께, 지역개발이나 복지상태의 평가기준으로서 종래의 물질적 지표인 GNP대신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지표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는 아직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생활의 질을 파악하려는 연구 또한 극히 제한된 수로 시도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 왕인근(1990)이 농촌지역에서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적했듯이 농촌지역에서의 생활의 질의 개념과 구성요소는 도시지역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종합적 측면에서 농촌생활의 질을 진단할 수 있는 척도개발과 체계확립을 위한 시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한국 농촌 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현재의 수준을 진단해 본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의 질」의 개념

생활의 질은 종래의 생활수준에 대한 척도로서 사용되던 GNP가 진정한 인간의 생활상태를 설명함에 있어 불완전하다는 인식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이 대두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흔히 '생활의 질'은 '행복된 삶'으로 일컬어지며 인간의 삶이 '좋은 상태' 혹은 '바람직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질적 생활'이란 하나의 일반개념으로서 '잘사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잘산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행복된 삶' 혹은 '좋은 삶'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또한 그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며 이를 정립하는 방법론적인 바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1965년 미국의 Cantrill(1965)은 이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여 좋은 삶을 구성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미국민을 대상으로 여러차례 조사를 행한 바 있는데, 사실 이와같은 좋은 삶이

¹⁾ 본 연구는 1991년도 교육부지원 학술진흥재단의 지역개발 연구비의 보조로 이루어졌음.

라든지 행복한 삶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매우 주관적이고 문화적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경제성장을 이룩한 서구에서는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많은 이론적 축적이 이루어져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생활의 질’을 정의하는데 다음의 3가지 유형이 이용되어 왔다.

첫째는 행복이라든지 만족 등과 같은 주관적 개념에서부터 접근하는 방법으로, 주관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행복이나 만족과 같은 개념은 복지라는 총체적 목표를 측정하고자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사회적 지표를 이용한 정의, 즉 GNP라든지 건강, 복지지표, 교육지표 등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회전체를 몇가지 대표적인 지표를 통하여 유형화 해보는 방법이다.

세번째는 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성분을 특정화 함으로써 간접적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사회지표와는 유형이 다른 지수들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지수군(群) 등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한편 Gerson(1976)은 종래의 생활의 질을 정의하는 방법들은 개인적 접근법(Individual Approach)과 초월적 접근법(Transcendental Approach)으로 나누고 개인적 접근법과 초월적 접근법의 어느 한쪽만으로는 생활의 질을 적합하게 정의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즉, ‘사회’와 ‘개인’중 어느 한쪽만을 다루는 것은 불충분하며 생활의 질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면에서 본 “지역사회” 생활의 질과 지역사회 면에서 본 “개인적” 생활의 질을 동시에 정의하는 제3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상호작용적 전망’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견해를 검토하면 생활의 질에 대한 통일되고 확정된 개념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하는 ‘물질적·객관적인 생활의 질’과 ‘정신적·주관적인 생활의 질’로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생활의 질 개념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의될 만큼 다양한 개념이지만 대체로 그 대상으로 개인 또는 집단과 같은 미시적대상과 함께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거시적 대상으로 하여 함께 고려하면서 각 대상별로는 인간의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생활조건과 그것으로부터의 정의적 평가로써 각 대상의 주관적 만족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생활의 질 측정

1) 생활의 질 측정법 고찰

생활의 질을 측정하려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꾸준히 시도되어 오면서 점차 변화,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연구방법의 변천과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초기에 사용된 방법으로 ‘Grass Root 접근법’이 있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응답자들로부터 생활경험의 목록과 그들의 견해로부터 생활의 질을 가장 잘 특징지우는 현상들을 끌어낸 다음 항목의 내용들을 통합하여 정리함으로써 일련의 핵심적인 항목들을 도출해 내는 방법인데 실제 적용시에 매우 임의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두번째 방법은 ‘생활의 질에의 수단적 접근법(Means to Quality of Life Approach)’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연구자가 객체의 도움 유무에 관계없이 개인의 복지에 관련되거나 기여한다고 가정되는 일련의 수단, 자원이나 조건들을 구체화하여 개인이 사는 지역사회 내에서 실제로 주어지거나 또는 그 개인에게 유용한 수단의 범위를 묻는 방법으로 객관적 사회지표가 바로 전형적인 예가 된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사용된 지표에 대한 구체화된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타당한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세번째로는 ‘Direct Facet Definitional 접근법’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연구자가 그 개념에 따르는 일체의 범주에서 그들의 주관적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 역시 실제로 선정되는 일련의 항목들이 임의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리하여 가장 최근에 등장한 연구 방법이 바로 '체계적 생활의 질 접근법(Systemic Life Quality Approach)'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은 개인의 조건에 관한 활동체계와 이론에 관한 과거의 학문적인 연구에 근거를 둔 연구법으로 facet의 이용과 객체의 응답을 응용한다는 점에서는 'Direct Facet Definitional' 접근법과 같지만 생활체계의 특정한 경우로 정의되는 개별인간의 생활성질에 관한 명백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생활의 질 연구는 또한 적용되는 세부지표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방법이 경제적 지표를 이용한 방법인데, 경제적 복지에서의 향상이 오히려 생활의 질에서의 파괴의 댓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질이나 복지수준을 말할 때에는 비록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으로써 경제적 복지부분을 반드시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 지표는 복지의 경제적 조건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객관적이면서 물질적인 척도에 병행하여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감 내지는 적정도를 파악하려는 주관적 척도가 함께 이용되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사회지표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이것은 복지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비경제적인 결정인자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면서 나타난 접근방법으로 지금까지 생활의 질을 밝히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의 상당분이 바로 이 사회지표를 이용하여 이루어져 왔다. 생활의 질을 측정하는데 사회지표가 특히 유용한 것은 이 지표에 함축된 규범적인 의미 때문인데, 바로 그 규범적인 방향들이 각 지표에 할당되게 됨으로써 측정되는 조건들이 많을수록 더 좋거나 더 나쁜 것이 된다는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생활만족은 그들이 사는 지역의 물리적 조건과 독립적일 수 있다는 지적과 또한 센서스 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대리척도만으로는 생활의 질의 복합적 측면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연구에서도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만족수준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세번째로는 미시적 지표를 이용한 방법으로 가족계획 사업과 관련지어 시도된 Wallace(1974)의 연구가 최초였다고 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이렇다 할만한 시도가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경혜(1980)의 연구를 시발로 지금까지 단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최은숙 등(1981:1990)과 조희금(1986)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주로 도시가정의 생활의 질 관련연구가 대부분이었다(곽인숙, 1986: 문숙재 등, 1983:1985: 이기영, 1984a:1984b: 이정수 등, 1985: 한경미 등, 1990). 우리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의 질을 연구한 이들 소수의 연구들중에는(김동일의, 1982: 김해동, 1976: 조희금, 1986: 최경구, 1978: 최은숙, 1981:1990: 한경혜, 1980) 거시차원과 미시차원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다루는 지표개발은 아직 시도되지 않은 상태이다.

2) 생활의 질 척도체계의 설정

척도의 체계를 설정하는 과정은 첫째,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의 선정과 둘째, 요인간의 가중치를 두는 과정의 2단계로 대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는 몇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 중에서도 질적인 개념을 양화(量化)하여 나타낸다는 그 자체가 갖는 한계점과 생활의 질 개념에 대한 정의가 그러하듯이 구성요인의 결정에 대한 부분도 학자마다 상이하여 그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점이 특히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1) 요인의 선정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생활의 질 개념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생활의 질을 이루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모두 포함시키는 척도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에 대해 Drewnowski(1970)는 "인간생활의 조건을 모두 나타낼 수는 없으며 또한 그럴 의도도 없다"고 하면서 이를 '측정 가능한 복지'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는 척도의 요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첫째 관찰가능할 것이며, 둘째 현재의 지식내에서 수량화를 할 수 있어야 하면서, 세째로는 수량화 되었을 때 인간생활조건에 향상과 저하상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실제적인 이유로 그 수가 너무 많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원칙에 근거하

여 그는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인간욕구의 유형과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활동의 유형에 따라 영양, 건강, 주거, 교육, 여가, 안전의 6개 요인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Ben(1975)은 요인의 구비조건으로 첫째는 보편적이어야 하며, 둘째로는 쉽게 납득할 수 있어 요인의 선정에 관해 일반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셋째는 역동적인 현대사회의 사회, 경제, 물질적 조건의 변화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과학적 접근방식에 의한 검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

山本(1974)은 요인은 첫째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둘째로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져야 하며, 셋째는 측정이 용이한 것이라야 하고, 넷째로는 서로 독립적이며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영양, 건강, 노동과 휴양, 주거, 여가, 교육, 생계의 안정, 생활 환경, 생활태도의 9개 요인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학자들과 연구에서 생활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구성요인을 제시하고 있다(표1 참조)

표1. 관련연구에서 사용한 '생활의 질' 측정지표*

연구자	지표	건강	교육 / 학습	고용 / 노동 생활	여가 / 오락	소득 지출	물리 환경	영양	주거	의복	가족 관계	계층 / 사회 이동	사회 참여	인구	사회 복지	사회 안전	작업 조건	사회 환경	취업 기회	지역 사회 생활
한국사회지표		○	○	○	○	○	○							○						○
일본사회지표		○	○	○	○	○	○								○					
미국사회지표		○	○	○	○	○	○	○						○						
UN (1954)		○	○	○	○	○	○	○	○					○						
UN (1976)		○	○	○	○	○	○	○	○	○				○						○
OECD(1973)		○	○	○	○	○	○	○	○	○										
Drewnowski(1973)		○			○		○		○		○									
Finland 지표		○	○	○			○		○		○									
German 지표		○	○	○			○		○		○		○							
ESCAP		○	○	○			○		○											
Wolfgang(1975)		○	○		○		○		○			○								○
Power(1980)					○		○		○					○						
Wallace(1974)					○		○		○					○						○
Bubolz외 (1980)		○		○	○		○		○		○									○
Shin외		○	○	○	○		○		○					○						○
Andrew & Withey(1974)		○		○	○		○		○											
Evans & Steelman(1977)		○	○				○		○											○
Harland(1972)		○	○		○		○		○											
Rodgers & Converse(1975)		○	○	○			○		○											
Hall(1976)		○	○	○	○		○		○											○
Harvey		○	○	○	○		○		○											○
Smith		○	○	○	○		○		○											○
Knox		○	○	○	○		○		○											○
Wilson(1973)		○	○	○	○		○		○				○							○
Ben(1975)		○	○	○	○		○		○					○						○
Schneider(1975)		○	○	○	○		○		○											○
山本松代(1974)		○	○	○	○		○		○											○
박용태(1977)		○	○	○	○		○		○											○
김경동외(1979)		○	○	○	○		○		○											○
김해동(1976)		○	○	○	○		○		○											○
문숙재외(1985)		○	○	○	○		○		○											○
최경구(1978)		○	○	○	○		○		○					○						○
김동일(1982)		○	○	○	○		○		○											○
홍동식(1983)		○	○	○	○		○		○											○
한경혜(1980)		○	○	○	○		○		○											○
최은숙외(1981, 1990)		○	○	○	○		○		○											○

* 지표의 구성내용 중 극히 희소한 항목은 제외시켰음.

이들의 견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질적생활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이것을 문화적 지역적 차이를 초월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생활의 질 구성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생활의 질 측정척도는 영양생활, 보건위생, 주거생활, 노동조건, 교육, 경제생활, 여가생활, 가족생활의 8개 영역을 구성요인으로 하고 있다.

(2) 요인의 가중화

생활의 질을 실제로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선정된 일련의 변수로 구성된 요인들에 대한 가중화 문제가 또하나의 쟁점이 된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연구자들간에 어떤 일관된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태인데 과연 어느것이 바람직한 삶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가 하는 상대적 중요성의 문제는 일단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김경동(1979)은 생활의 질을 이루는 요인들에 대해 사회성원의 가치판단에 입각하여 각 요인간의 가중치를 얻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중치가 측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Ben, Wilson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이 정립되지 않은 가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동일가중치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요인의 가중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론이 없는 데 그 근본원인이 있으며 실제로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에서 가중화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보다는 연구완료 후의 제언으로 가능한 방법 내지는 문제점으로써 지적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요인간의 가중치를 설정하지 않았는데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의 체계화를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영역에 대한 응답자들의 가치를 묻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척도의 구성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표를 고찰하고 새로운

지표를 개발한다는 종합적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먼저 생활의 질 관련문헌을 고찰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측정지표로 사용한 요인들을 하나의 표로 <표 1>에 정리하여 고찰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의 질 진단지표는 크게 사회지표와 각 개인연구자별 지표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지표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국가의 사회지표는 유아사망율이나 평균수명같은 건강요인, 교육수준 내지는 문해율, 취업기회 또는 노동조건, GNP나 1인당 국민소득 같은 경제요인, 사회계층 이동 또는 투표율과 같은 사회참여 부분, 인구척도, 범죄율 같은 사회요인 등의 거시척도가 주로 이용되어 왔는데 <표 1>에 나타난대로 같은 내용을 단지 요인영역만 달리한 경우라든지, 영역은 같은데도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각 개인연구자별 척도를 보아도 대개는 사회보고서나 지역보고서 같은 거시자료에서 취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거나 만약 집단간의 비교를 시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들에서 공통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척도의 일관성이나 타당성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와같은 객관적 지표와 함께 주관적 지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점차 강해지면서 이러한 연구방법은 실질적인 생활의 질을 진단하고자 하는 욕구와 배치될 가능성이 많고, 단일척도의 적용보다는 총체적 종합척도로의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연구성격 면에서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한경혜(1980)와 최은숙(1981)의 미시적 접근과 김동일 외(1982)의 거시적 접근 등 일련의 연구들의 후속 연구로서 농촌지역의 생활의 질을 진단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단일지표적 연구들을 총괄하는 의미를 갖는 연구가 되는 것이다.

2)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검증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집약되는 생활영역을 포함하는 조사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척도는 크게 미시지표인 개별가구 조사용과 거시지표인 거주마을용의 두 종류로 분류하고, 각각을 객관적 생활(환경)조건과 주관적 만족도의 두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그림 1).

개별가구의 생활의 질 구성요인으로는 실제 연구에서 척도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생활영역 요인을 중심으로 영양생활, 보건위생, 주거생활, 노동조건, 교육, 경제생활, 여가생활, 가족생활 등 8개 영역을 선정하였다. 거주마을 지표로는 마을의 일반적인 조건, 자연·물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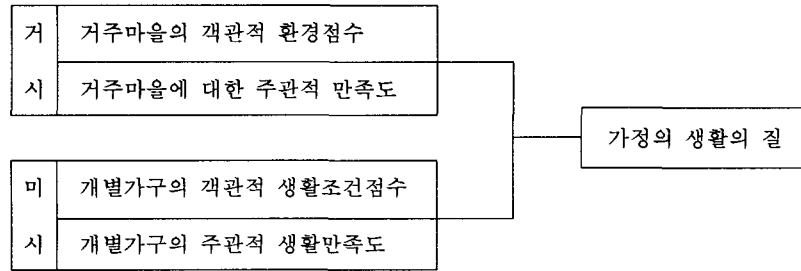


그림 1. 척도구성 개념

경 등의 3개 영역요인에 관한 객관적 척도와 이들에 대한 만족도 측정을 위한 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지표 및 척도는 다음의 표 2, 표 3, 표 4,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2

는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미시지표 중 객관적 생활의 질 지표와 그 척도를 정리하고 있는데, 8개 영역에서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2. 개별가구의 객관적 '생활의 질' 지표 및 척도

생활지표	척도	점수			
		1 점	2 점	3 점	4 점
영양생활	계획적인 영양관리 실천	별로 아니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매일 한다
	균형식사 실천 여부	별로 아니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매일 한다
	특정가족원을 위한 특별음식 준비 등의 배려	아니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매일 한다
보건위생	질병예방을 위한 진단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정도	전혀 안함	한 번	두세번	매년 정기적
	건강상 위급상황 발생시 조치법	그냥 참는다	민간요법	적정약 구입	병원이나
주거생활	작년 1년간의 가족병상일수	1달 이상	1주일~1달	1주일미만	없음
	의료보험 혜택 가족수	없다	취업가족만	그외 일부	전원
	주택의 밀집도(가족수/방수)	~0.24	0.25~0.49	0.50~0.74	0.75~
	겨울철 수면시 보온상태	차다 자주웬다	두꺼우면 따뜻	약간 시림	언제나 따뜻
	주택 보유시설	1~2개	3~4개	5~6개	7~8개
거주주택의 상태	새로 짓는것이	손봐야 함	손봐야 함	손볼 필요가	
	나온 정도	증개축계획 무	증개축계획 유	없음	

생활지표	척도	점수			
		1 점	2 점	3 점	4 점
노동조건	부역시설 상태	~3개	4~5개	6~7개	8~9개
	가사편이기구 보유정도	~1개	2~3개	4~5개	6개
	노동시간	13시간 이상	11~12시간	9~10시간	8시간 이하
	가사도구 및 시설의 편이성	부족, 불편	약간 미흡	충분, 편리	충분, 편리
	안정성	위험	불편, 위험	위험	안전
교육	자녀교육실태(희망학력비교)	불일치	-	-	일치
	자녀교육을 위한 대비정도	전혀 없음	일부, 부분	일부, 완전	모든자여위해
	자녀교육비 부담정도	매우 부담됨	다소 부담됨	별 부담안됨	전혀 안됨
	자신의 지식 및 교양수준	전혀 안함	별로 노력	약간 노력함	적극적으로
	항상 노력 정도		안함		노력함
경제생활	상대적 경제적 위치인지	하	중하	중상	상
	지난 1년의 소득 적정도	부족	거우 충당	조금 남음	여유(저금)
	부채유무 및 부담정도	상환 막막	다소 부담	별 부담안됨	부채없음
	노후생활 준비정도	전혀 안함	이제 시작	어느정도 됨	완전함
	여가생활	1일 자유시간 정도	1시간 이하	2~3시간	4~5시간
가족생활	가족 여가생활 상태	전혀 없다	1년 2~3회	1년 4~5회	1년 5회이상
	여가생활을 위한 가정조건	한가지	두가지	세가지	네가지
	부모-자녀간 대화정도	전혀 안함	어쩌다 함	자주 함	정기적으로
	부부간 의사결정 형태	남편 주도	부인 주도	의논·상황별	부부의논
	가족원간 역할분담	전혀 아니다	별로 안함	어른·큰아이	전원실행
가족원 갈등정도	매우 심함	간혹 심함	간혹 있음	전혀 없음	

표3. 개별가구의 주관적 '생활의 질' 지표 및 척도

생활지표	척도	점수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영양생활	계획적인 영양관리 실천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균형식사 실천 여부	1	2	3	4	5
	특정가족원을 위한 특별음식 준비 등의 배려	1	2	3	4	5
보건위생	질병예방을 위한 진단,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정도	1	2	3	4	5
	건강상 위급상황 발생시 조치법	1	2	3	4	5
	작년 1년간의 가족병상일수	1	2	3	4	5
주거생활	의료보험 혜택 가족수	1	2	3	4	5
	주택의 밀집도(가족수/방수)	1	2	3	4	5
	겨울철 수면시 보온상태	1	2	3	4	5
	주택 보유시설	1	2	3	4	5
	거주주택의 상태	1	2	3	4	5
노동조건	부역시설 상태	1	2	3	4	5
	가사편이기구 보유정도	1	2	3	4	5

생활지표	척도	점 수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교육	노동시간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가사도구 및 시설의 편리성	1	2	3	4	5
	안정성	1	2	3	4	5
	자녀교육실태(희망학력비교)	1	2	3	4	5
	자녀교육을 위한 대비정도	1	2	3	4	5
	자녀교육비 부담정도	1	2	3	4	5
	자신의 지식 및 교양수준 향상 노력 정도	1	2	3	4	5
경제생활	상대적 경제적 위치인지	1	2	3	4	5
	지난 1년의 소득 적정도	1	2	3	4	5
	부채유무 및 부담정도	1	2	3	4	5
여가생활	노후생활 준비정도	1	2	3	4	5
	1일 자유시간 정도	1	2	3	4	5
	가족 여가생활 상태	1	2	3	4	5
가족생활	여가생활을 위한 가정조건	1	2	3	4	5
	부모-자녀간 대화정도	1	2	3	4	5
	부부간 의사결정 형태	1	2	3	4	5
	가족원간 역할분담	1	2	3	4	5
	가족원 갈등정도	1	2	3	4	5

표4. 거주마을의 객관적 '생활의 질' 지표

영역	척도	점 수			
		1점	2점	3점	4점
마을의 일반적 조건	마을내의 농가비율	~60%	61~75%	76~90%	91%~
	2,30대 남녀인구비	11% 미만	11~20% 미만	20~27% 미만	27% 이상
	가구당 평균소득(천원)	5,000미만	5,000~8,000	8,000~10,000	10,000이상
	마을민들의 인화정도	매우좋지못함	약간좋지못함	약간좋은편	매우좋은편
	이농율	10% 이상	5.1~10% 미만	0.1~5% 미만	없다
	공공편의시설수	없다	5~10개	11~15개	16개 이상
	전반적인 마을평가	미비하다	-	그저그렇다	살기좋다
자연·물리적 환경	도로포장율	20% 이하	21~50% 이하	51~80% 이하	81% 이상
	상수도 보급율	40% 정도	50~60% 정도	70~80% 정도	90% 이상
	정기버스 운행회수	없다	1~9회	10~19회	20회 이상
	인근도시 접근소요시간	46분 이상	30~45분	16~30분	15분 이내
	하수시설	10% 정도	20~30% 정도	40~60% 정도	70% 이상
	쓰레기처리방법	전혀수거안함	거의수거안함	가끔수거함	정기적수거
	식수 안전여부	이미오염	안전오염우려	-	절대안전
사회·문화적 환경	마을내 의료시설	없다	보건소 또는 1	보건소와 1개	전문·다수
	약국의 유무	없다	-	-	있다
	행정기관까지의 거리	4km 이상	2~4km 이내	1~2km 이내	1km 이내
	범죄발생 여부	자주발생	가끔발생	-	전혀없음
	화재발생 여부	있었음	-	-	없었음
	마을공동행사	참여저조	-	2회, 참여 좋음	3회, 잘참여
	마을주민의 여가방법	음주·화투	빈둥·잡담	라디오.TV.VTR	영화.웃

표5. 거주마을의 주관적 '생활의 질' 지표

지 표	척 도	점 수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 통	만 족	매우 만족	
	마을에 대한 만족 1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마을에 대한 만족 2	1	2	3	4	5	
	이탈심정유무 1	(아니다) 1	2	3	4	5	
	이탈심정유무 2	(아니다) 1	2	3	4	(그렇다) 5	
	마을민 인화정도 1	(아니다) 1	2	3	4	(그렇다) 5	
	마을민 인화정도 2	(아니다) 1	2	3	4	(그렇다) 5	
마을의 일반적 조건	마을일예의 관심	1	2	3	4	5	
	주인의식	1	2	3	4	5	
	편안함	1	2	3	4	5	
	마을의 장래	1	2	3	4	5	
	마을의 발전의식	1	2	3	4	5	
	5년전보다 향상여부	(아니다) 1	2	3	4	(그렇다) 5	
	마을지도자유무	1	2	3	4	5	
	타인의 관심	1	2	3	4	5	
	마을에 대한 비판	1	2	3	4	5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	2	3	4	5	
	자연·물리적 환경	쓰레기 처리문제	1	2	3	4	5
		하수처리시설	1	2	3	4	5
		마을의 위치	1	2	3	4	5
마을의 도로사정		1	2	3	4	5	
사회·문화적 환경	마을의 행정편이시설	1	2	3	4	5	
	농수축협이용서비스	1	2	3	4	5	
	물품구매여건	1	2	3	4	5	
	마을민의 협조정도	1	2	3	4	5	
	범죄로부터의 안전	1	2	3	4	5	
	가로등시설	1	2	3	4	5	

이 각각의 문항들은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4점으로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상태를 1점으로 한 Likert 척도로 구성이 되었으며, 이 결과 총점은 120점이 된다.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 척도와 동일영역, 동일문항으로 구성하고 각 문항별로 '매우 만족'을 5점, '매우 불만족'을 1점으로 하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고, 그러한 점수의 합은 150점이 된다. 주관적 만족도 지표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4는 거주마을을 분석단위로 하는 거시지표 중 객관적 척도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시지표는 마을의 일반적 조건, 자연물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의 3가지 영역으로 세분하고, 각각

의 영역은 7개의 척도로 구성하였다. 마을단위의 객관적 환경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 평가하여 각 영역당 28점으로 거시지표의 객관적 척도로 점수의 총합은 84점이다. 마을단위의 객관적 수준에 관한 이들 거주민들의 주관적 만족도 척도는 각 영역별로 객관적 척도와 부합되면서 개인이 응답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28개의 문항을 선정한 다음 '매우 불만족' 또는 '매우 아니다'를 1점, '매우 만족' 또는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Likert 척도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측정된 거시주관적 생활의 질 점수의 합은 140점이 된다. 마을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주관적 만족도 측정척도는 표 5에서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구해진 거시/객관적 생활의 질, 거시/주관적 생활의 질, 미시/객관적 생활의 질, 미시/주관적 생활의 질 점수는 비교가 용이하도록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든 생활의 질 점수는 이러한 100점 만점 환산점수이다. 이렇게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척도의 구체적인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하여 여러차례 관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쳤고, 그 결과 구성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경기도 가평군과 용인군에 사는 농가주부 50명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을 조정하였다.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론바하 α 계수로 살펴본 척도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거주마을의 객관적 척도는 조사지역으로 선정된 48개 마을이 그 분석단위가 되므로, 표본수가 너무 적어서 α 계수가 갖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척도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안면타당도를 이용하였다.

표6. 척도의 신뢰도 계수

척도	Cronbach's α
개별가구의 객관적 척도	0.78
주관적 척도	0.83
거주마을의 주관적 척도	0.65

2) 조사방법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국 농촌지역을 크게 평야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 도시근교지대로 나누고, 다단계층화확률 추출법을 적용하여 9개도 24개 시군에서 48개 마을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한 다음, 이 마을에 거주하는 농촌주부 900명에게 기작성된 개별가구용(객관적, 주관적) 및 거주마을용(주관적) 조사표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해당마을에서는 마을의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거주마을용 객관적 척도에 관하여 기작성한 조사표에 대한 협조를 의뢰하면서 직접 조사표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면접조사자는 사회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조사대상 시군에서 직접 선발하여 본 조사의 취지와 조사방법을 충분히 이해시킨 후 활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1992년 3월 16일 부터 4월 4일까지 실시하였고, 조사완료 후 수집된 조사표는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응답자 및 가구의 일반상황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조사는 크게 마을단위와 개별가구단위의 두 종류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조사의 대상이 된 군단위에서는 2개마을에서 각 40명씩의 주부가 그리고 시단위에서는 역시 2개마을에서 각 30명씩의 주부가 응답하도록 하여 총 900가구의 주부를 본 조사의 면접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회수된 설문지 중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기재된 조사표를 제외한 나머지 886호분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물론 이중에는 부분적으로 응답이 되어있지 않은 가구분을 분석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각 문항별 합계에 차이가 나고 있음을 밝혀 둔다.

또한 본 조사는 9개도의 농촌마을을 크게 평야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 도시근교지대의 4개 지대로 나누어 각 지대별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각 응답자의 지대별 분포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7. 조사마을 및 응답자의 분포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시군수	3	3	2	3	2	3	3	3	2	24개
마을수	6	6	4	6	4	6	6	6	4	48개
응답자	110	110	70	110	70	111	116	119	70	886명
%	12.4	12.4	7.9	12.4	7.9	12.5	13.1	13.4	7.9	100.0

표8. 응답자의 지대별 분포

구분	평야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	도시근교	계
N	229	237	240	180	886
%	25.8	26.7	27.1	20.3	100.0

1) 조사가구의 일반상황

본 조사는 농촌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사마을 내에 거주하는 농가와 비농가가 모두 조사가구로 포함되어 있다. 다음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가 85.6%이고, 비농가가 14.4%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농가의 직업에는 공무원, 회사

원, 일반 노무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조사대상 가구에서 부부의 연령도 같은 표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주부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50대, 40대의 순이었으며, 남편은 5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대, 3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학력은 주부는 국졸이 4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졸의 순으로 중졸이하가 72.1%인 반면, 남편은 국졸이 33.5%로 역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이 고졸, 중졸의 순으로 중졸이상이 57.4%로 주부보다 학력수준이 높았다.

표9.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상황

구분		MEAN	SD	구분		MEAN	SD
		N	%			N	%
직업 분류				주부의 연령			
1	농가	758	85.6	1	29세 이하	45	5.1
2	비농가	128	14.4	2	30~39세	255	29.1
가족수		4.8명	1.39	3	40~49세	229	26.1
1	2명	62	7.2	4	50~59세	245	27.9
2	3명	81	9.5	5	60세 이상	103	11.7
3	4명	192	22.4	남편의 연령			
4	5명	220	25.7	1	29세 이하	17	2.0
5	6명	245	28.6	2	30~39세	197	22.7
6	7명 이상	56	6.5	3	40~49세	239	27.5
동거가족수		3.9명	1.47	4	50~59세	257	29.6
1	2명 이하	136	16.2	5	60세 이상	159	18.3
2	3명	384	45.8	주부의 학력			
3	4명	154	18.4	1	무학·국해	105	12.4
4	5명	96	11.4	2	국졸	383	45.2
5	6명 이상	69	8.2	3	중졸	228	26.9
경지면적				4	고졸	125	14.7
1	없음	79	9.3	5	대졸	7	0.8
2	1평~1,099	97	11.4	남편의 학력			
3	1,100~1,699	110	12.9	1	무학·국해	76	9.0
4	1,700~2,499	169	19.9	2	국졸	283	33.5
5	2,500~3,999	188	22.1	3	중졸	197	23.3
6	4,000~5,999	133	15.6	4	고졸	253	29.9
7	6,000평 이상	75	8.8	5	대졸	36	4.3

가족수는 평균 4.8명으로 '90 전국농가 평균 가족수인 3.77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동거가족수는 3.90명으로 전체 가족원 중 1명 정도가 동거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기구에서 경작하고 있는 논, 밭, 과수원 그리고 기타 상전 등을 모두 포함한 경지규모는 2,500~3,999평이 22.1%로 가장 많았고, 조사기구의 호당 경지규모는 평균 3,010.3평으로 '90 전국농가 평균인 3,624평의 83.1% 수준이었다.

2. 농촌가정의 생활의 질 진단결과

농촌가정의 현재의 생활의 질 수준을 진단해 보기 위하여 먼저 개별가구의 객관적 생활조건 점수와 주관적 만족도 점수를 구하고, '거주마을의 객관적 환경점수와 주관적 만족도 점수를 각각 계산하였다. 이를 다시 개별가구분과 거주마을분에서 각각의 객관적 점수와 주관적 점수를 합하여 미시점수와 거시점수를 산출하였고, 이 두점수를 합하여 농촌가정의 생활의 질 점수로 하였는데, 이상의 모든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1)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생활영역

본 조사에서 농촌가정의 생활의 질을 측정 한 8개 생활영역중 응답자들 자신이 어느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선 알아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0에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응답자들이 제 1순위로 중요하게 꼽는 것이 '건강한 삶'으로써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고, 제 2순위로는 '자녀의 성공'을, 제 3순위로는 '화목한 가족생활'을 들고 있었다. 응답자들 자신이 어느 영역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지하는가 하는 점은 생활의 질 연구에서 대두되는 가중치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1965년 Cantril이 미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 적절한 생활수준을 1,2위로 하고 그외에 자녀, 주거, 행복한 가족 등을 거론하였고, 1973년의 Rolls와의 공동연구에서 미국인들이 ① 자신의 건강 ② 생활수준의 향상 ③ 자녀를 위한 열망의 성취 ④ 행복한 가정생활 ⑤ 가족의 건강 ⑥ 마음의 평안 ⑦ 보다 나은 집 등을 생활의 질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밝힌 정도가 있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를 가중치 문제로까지 연결짓지는 못하였지만 시험적으로 이들 영역의 순위별로 가중치를 두고 다시 살펴본 결과도 역시 이와 동일한 순위로 나타나 한국 농촌가정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생활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생활영역

구 분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종합순위
충분한 영양	78명	15명	6명	6
건강한 삶	559	141	54	1
좋은 집에서 살기	18	27	17	8
좋은 환경에서 일하기	21	52	26	7
자녀의 성공	91	339	118	2
경제적 여유	32	126	170	4
충분한 여가생활	14	71	91	5
화목한 가족생활	72	114	402	3
계	885	885	885	

* 종합순위=(제1순위*3)+(제2순위*2)+(제3순위*1)의 크기 순위임.

2) 4차원 지표로 본 농촌가정의 생활의 질 수준

다음 표 11은 4가지 차원의 각 지표별로 본 농촌가정의 생활의 질 평균점이다. 여기에서 보면 개별가구의 미시점수보다는 거주마을의 거시점수가 약 3점이 더 높은 59.2점이었고, 각 대상 모두 객관적 점수보다는 주관적 점수가 훨씬 낮아서 농촌주민의 상대적인 불만감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표 11. 4가지 지표로 본 농촌가정의 생활의 질 평균점

구 분	거주마을 거시점수		개별가구 미시점수		총점
	객관적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평균점	64.5	53.8	59.0	53.9	57.7점
	59.2		56.2		

(1) 거주마을의 생활의 질 수준

앞의 표 4에서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거주마을의 객관적 생활환경 척도로는 마을 관련 3개 영역 21

개 항목을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거주마을 지표로 본 생활의 질 수준을 평가한 뒤, 이를 동일마을에 거주하는 가구들에게 동일한 점수로 처리하였고, 주관적 만족도는 기작성된 개별가구용 조사표에서 가구원을 대표해서 역시 주부로 하여금 응답토록 한 결과이다. 이 각각의 점수는 모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거주마을의 객관적 환경점수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4가지 차원의 지표 적용결과 중 가장 높은 64.5점의 평균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마을 환경에 대한 주관적 만족점수는 4가지 차원 중 가장 낮은 53.8점으로 나타났다. 마을단위 환경에 대한 거주주민들의 불만족이 높은 점은 객관적 생활환경 점수에서는 65점 이상의 가구가 63%인 반면, 주관적 만족점수에서는 3.5%에 불과한 점에서 보더라도

표12. 거주마을 지표로 본 생활의 질 수준분포

구 분	객관적 환경점수	주관적 만족도	총 합	N(%)
45점 미만	77 (8.9)	61 (7.7)	37 (4.8)	
45~50점 미만	0	130 (16.3)	43 (5.5)	
50~55점 미만	69 (8.0)	273 (34.3)	67 (8.6)	
55~60점 미만	45 (5.2)	186 (23.4)	235 (30.3)	
60~65점 미만	265 (30.6)	25 (3.1)	100 (12.9)	
70~75점 미만	225 (26.0)	3 (0.4)	13 (1.7)	
75~80점 미만	20 (2.3)	0	0	
80점 이상	35 (4.0)	0	0	
계	865 (100.0)	796 (100.0)	775 (100.0)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전체적인 거주마을의 생활의 질 수준은 60~65점 미만 가구가 가장 많아 36.1%였고, 다음이 55~60점 미만 가구로 30.1%를 차지하여, 55~65점 미만 가구가 전체의 약 2/3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보면 주관적 만족도는 객관적 환경점수에 비해 그 분포가 하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제의 마을환경 수준에 비해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그에 못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2) 거주마을의 객관적, 주관적 지표로 본 생활의 질

① 거주마을의 객관적 지표로 본 생활의 질 먼저 객관적 지표면을 보면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의 일반적 조건에 관한 척도로 낸 결과는 60~70점 미만의 가구가 3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50~60점 미만의 가구였다. 전체평균은 65.5점 정도로 최고수준은 85.7점이고, 최저수준은 46.4점이었다.

표13. 거주마을의 객관적 환경조건점수의 분포

객관적 조건	50점미만	50~60점	60~70점	70~80점	80~90점	90점이상	계
마을의 일반적조건	N 55 (%) (6.4)	225 (26.0)	284 (32.8)	201 (23.2)	100 (11.6)	0 (0.0)	865 (100.0)
자연물리적 환경	N 106 (%) (12.0)	170 (19.2)	250 (28.3)	305 (34.5)	39 (4.4)	15 (1.7)	885 (100.0)
사회문화적 환경	N 75 (%) (8.5)	73 (8.2)	246 (27.8)	321 (36.3)	170 (19.3)	0 (0.0)	885 (100.0)

자연물리적 환경수준과 사회문화적 환경수준은 마을의 일반적 환경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70~80점 미만 가구가 각각 34.5%, 36.3%로 가장 많았는데, 전체 평균을 보면 사회문화적 환경수준은 66.3점으로 마을의 일반적 조건수준보다 높았지만 자연물리적 환경수준은 오히려 낮아 61.9점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자연물리적 환경은 그 편차가 다른 조건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농촌마을의 자연물리적 환경은 마을에 따라 그 수준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② 거주마을의 주관적 지표로 본 생활의 질

주관적 지표면을 보면 다음의 표 14에서와 같이 마을의 조건에 관한 만족도는 50~60점 미만의 가구가 5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60~70점 미만의 가구였다. 그런데 전체평균점은 객관적 지표의 경우보다 약 9점이 낮아진 56.4점 정도로 최고수준은 85.3점이고, 최저수준은 28점이었다. 그리고 자연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객관적 지표에서와는 달리 50~60점 미만 가구가 각각 32.4%, 39.6%로 가장 많았는데, 전체 평균수준은 사회문화적 환경에의 만족도는 52.7점으로 마을의 조건에의 만족도보다 높았지만 자연물리적 환경에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 51.7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객관적 지표에 의한 결과보다는 무려 10점이나 낮은 것이다.

여기서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실제적인 환경은 마을에 따라 수준이 다양하므로 그로 인해서 느끼는 만족의 수준 역시 다양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자연물리적 환경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마을의 객관적 환경수준에 비해, 농촌주민들의 만족수준이 극히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농촌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농민들의 의식이 주요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3) 개별가구 지표로 본 생활의 질 수준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측정한 생활의 질 수준 진단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았다. 여기에서 보면 개별가구의 점수는 60점 미만인 가구가 66.7%로 점수가 계산된 342가구중 2/3가 이에 해당하는 셈이다. 평균점은 56.2점이었고, 최고수준 81.7점에서부터 가장 낮은 36.7점까지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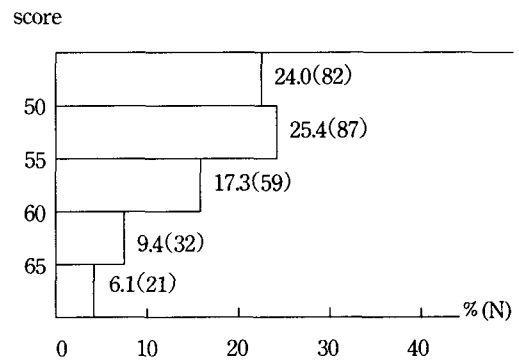


그림 2. 개별가구 지표로 본 생활의 질

* 8개 영역중 1개 영역이라도 응답이 누락된 가구는 결측치로 처리함.

표 14. 거주마을의 환경조건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의 분포

주관적 조건	40점미만	40~50점	50~60점	60~70점	70~80점	80점이상	계
마을의 일반적조건	N 4 (%) (0.4)	83 (9.9)	490 (58.8)	248 (30.0)	6 (0.7)	2 (0.2)	833 (100.0)
자연물리적 환경	N 112 (%) (13.0)	225 (26.2)	278 (32.4)	162 (18.9)	63 (7.3)	19 (2.2)	859 (100.0)
사회문화적 환경	N 48 (%) (5.6)	249 (29.3)	337 (39.6)	206 (24.2)	8 (0.9)	3 (0.4)	851 (100.0)

(4) 개별가구의 객관적 지표에 의한 생활의 질 다시 척도를 세분화하여, 조사가구를 대상으로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된 생활의 질 수준을 정리하면(그림 3) 객관적 척도에 의한 생활의 질 수준이 50~60점 미만인 가구가 40.4%로 가장 많았고, 60~70점 미만은 31.3%로 나타났는데, 이중 최고수준은 82.3점이고, 최저수준은 평균 34.1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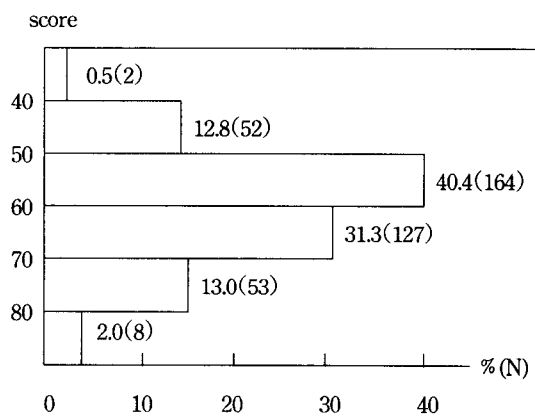


그림3. 객관적 척도로 측정된 생활의 질 수준 분포

* 8개 영역중 1개 영역이라도 응답이 누락된 가구 분은 결측치로 처리함.

개별가구 지표의 구성요인인 8개 영역별로 전체적인 수준을 살펴보면 그림 4에서와 같이 보건위생 영역이 70점대를 넘어 가장 수준이 높았고 다음이 주거생활과 가족생활이 60점대 순으로 상대적으로 볼 때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었고, 다른 5가지 영역 즉 교육, 여가생활, 노동조건, 경제생활은 50점대로 나타났으며, 영양생활은 가장 낮은 수준이고 평균 점보다 11.2점이나 낮은 47.8점으로 모든 영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를 선행연구인 최(1981)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영양과 경제적 안정성 영역이 60점에 못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최등(1990)의 결과에서도 영양 영역은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이면서, 그 다음이 경제생활 면이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부분이었고, 그들의 연구에서는 중간수준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난 보건위생(건강) 영역이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있어 물론 연구들 간에 동일척도는 아니었다 해도 농촌지역에서의 보건위생 수준이 그동안 향상되어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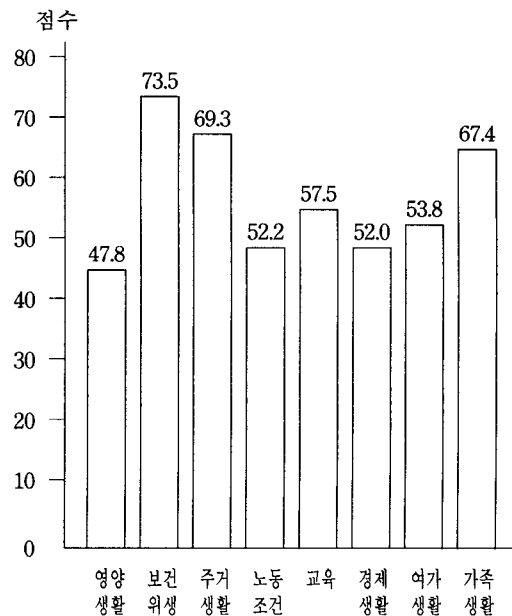


그림4. 객관적 척도로 측정된 생활영역별 생활의 질 수준

영역별 생활의 질 점수 분포를 보면 다음 표 15와 같다. 여기에서 보면 보건위생, 주거생활, 가족생활의 3개 영역은 60~70점 미만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그외에 영양생활, 노동조건, 교육, 경제생활, 여가생활 등 5개 영역에서는 이보다 낮은 50~60점 미만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체로 보면 영양생활과 여가생활면은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수준의 가구가 많은 반면, 보건위생면의 분포는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15. 각 영역별 생활의 질 수준분포

구 분	30점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60 미만	60~70 미만	70~80 미만	80~90 미만	90점 이상	계
영양생활 N	129	150	155	263	88	75	16	7	883
(%)	(14.6)	(17.0)	(29.8)	(29.8)	(10.0)	(8.5)	(1.8)	(0.8)	(100.0)
보건위생 N	0	5	8	69	286	193	278	41	880
(%)	(0.0)	(0.6)	(0.9)	(7.8)	(32.5)	(21.9)	(31.6)	(4.7)	(100.0)
주거생활 N	0	12	23	183	286	101	137	85	827
(%)	(0.0)	(1.4)	(2.8)	(22.1)	(34.6)	(12.2)	(16.6)	(10.3)	(100.0)
노동조건 N	11	106	112	193	183	93	93	18	809
(%)	(1.4)	(13.1)	(12.6)	(23.9)	(22.6)	(11.5)	(11.5)	(2.2)	(100.0)
교 육 N	14	39	79	156	141	44	44	3	520
(%)	(2.7)	(7.5)	(15.2)	(30.0)	(27.1)	(8.5)	(8.5)	(0.6)	(100.0)
경제생활 N	32	159	157	263	190	42	35	1	879
(%)	(3.6)	(18.1)	(17.9)	(30.0)	(21.6)	(4.8)	(4.0)	(0.1)	(100.0)
여가생활 N	14	91	191	290	117	71	28	18	852
(%)	(1.6)	(10.7)	(29.8)	(37.8)	(13.7)	(8.3)	(3.3)	(2.1)	(100.0)
가족생활 N	1	14	20	168	239	86	154	22	704
(%)	(0.1)	(1.9)	(2.8)	(23.9)	(33.9)	(12.2)	(21.9)	(3.1)	(100.0)

(5) 개별가구의 주관적 지표에 의한 생활의 질 수준

각 가구를 대상으로 측정한 주관적생활의 질 수준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여기에서 보면 주관적 척도에 의한 생활의 질 수준은 객관적 척도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50~60점 미만인 가구가 41.7%로 가장 많았으나, 다음이 40~50점 미만가구가 26.0%로 나타난 점이 달랐다. 특히 최하수준이 객관적 척도결과 보다 7.2점이나 낮은 26.9점이었고, 최고수준 역시 2.3점이 낮은 80.0점으로 주관적 척도에 의한 생활의 질 수준이 훨씬 낮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구성요인인 8개 영역별로 전체가구의 주관적인 생활의 질 수준을 살펴보면 그림 6과 같이 객관적 생활조건점수와 달리 6,70점대의 점수를 보이는 영역은 하나도 없고, 가장 높은 영역인 가족생활 부문이 59.4점으로, 주관적 만족도가 객관적 생활수준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가족생활 다음으로는 주거생활, 보건위생 영역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상의 3가지 영

역이 3순위까지인 점은 객관적 생활조건과의 경우와 같았으나 1순위가 자리바꿈 하였고, 특이한 것은 객관적 생활조건점수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난 영양생활 영역이 주관적 만족도에서는 네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데다가 절대점수도 그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경제생활 면은 객관적 조건점수나 주관적 만족도 모두 7번째 순위여서 농촌가정에서의 경제생활 면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인다.

이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최(1981)의 연구결과에서는 작업조건과 여가생활 부분이 상위 1,2순위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결과와 매우 상이한 것이었고 경제적 안정성 면이 가장 낮았던 것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최등(1990)의 연구결과는 노동조건 중 가사노동 부분만을 다룬 것이었지만 여가생활, 경제생활, 가사노동의 순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나 있어, 본 연구결과에서 여가생활, 교육, 노동조건의 순으로 점수가 낮게 나온 것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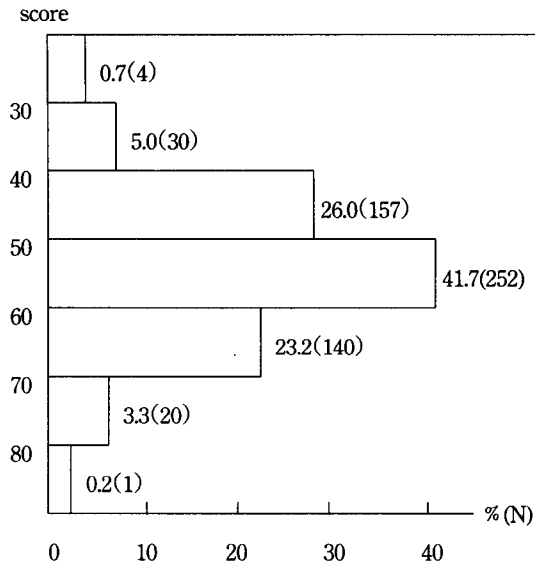


그림5. 주관적 지표로 측정된 생활의 질 수준 분포

* 8개 영역중 1개 영역이라도 응답이 누락된 가구 분은 결측치로 처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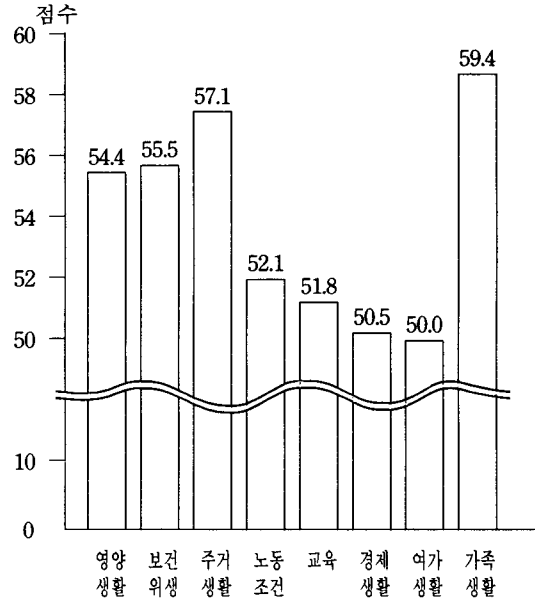


그림6. 주관적 척도로 측정된 생활영역별 생활의 질 수준

표16. 각 영역별 생활의 질 수준분포

구 분	30점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점	계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영양생활 N	47	22	188	120	412	41	25	0	855
(%)	(5.5)	(2.6)	(21.9)	(14.0)	(48.2)	(4.8)	(2.9)	(0.0)	(100.0)
보건위생 N	13	42	127	220	252	89	26	7	776
(%)	(1.7)	(5.4)	(16.4)	(28.3)	(32.5)	(11.5)	(3.4)	(0.9)	(100.0)
주거생활 N	26	62	164	174	207	96	96	23	848
(%)	(3.1)	(7.4)	(19.4)	(20.5)	(24.4)	(11.3)	(11.3)	(2.8)	(100.0)
노동조건 N	50	91	195	200	210	78	43	6	873
(%)	(5.8)	(10.4)	(22.3)	(22.9)	(24.1)	(8.9)	(4.9)	(0.7)	(100.0)
교육 N	30	71	170	243	216	48	16	0	794
(%)	(3.8)	(8.9)	(21.4)	(30.6)	(27.2)	(6.1)	(2.0)	(0.0)	(100.0)
경제생활 N	28	91	223	218	215	41	21	0	837
(%)	(3.3)	(10.8)	(26.7)	(26.0)	(25.7)	(4.9)	(2.5)	(0.0)	(100.0)
여가생활 N	62	57	310	139	268	24	16	0	876
(%)	(7.1)	(6.5)	(35.4)	(15.9)	(30.6)	(2.7)	(1.9)	(0.0)	(100.0)
가족생활 N	9	16	70	209	267	117	37	8	835
(%)	(1.1)	(1.9)	(8.4)	(25.3)	(44.0)	(14.0)	(4.5)	(0.9)	(100.0)

이것을 다시 구성요인인 8개 영역별 분포로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주관적 만족도는 각 영역별로 비교적 수준이 고른편이었는데, 가족생활과 주거생활, 보건위생 면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그 다음이 영양생활, 노동조건, 교육, 경제생활, 여가생활의 순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아서 영양생활, 보건위생, 주거생활, 노동조건, 가족생활의 5개 영역에서 50~60점 미만의 가구가 가장 많았고, 경제생활과 여가생활은 이보다 더 낮은 40~50점 미만의 가구집단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또한 영양생활은 객관적 조건 점수가 30점 미만의 가구가 14.6%나 되는 반면, 주관적 만족도의 경우는 5.5%로 이 영역은 대체로 실제보다 주관적인 만족수준이 높았고, 이와 반대로 보건위생과 주거생활은 객관적 조건에서는 없는 30점 미만의 낮은 점수집단이 상당히 나타난 점에서 실제보다 만족도가 낮은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각 영역별 주관적 만족도는 객관적 조건점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객관적인 상태와 주관적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아도 영양생활과 노동조건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주관적 만족도에 비해 객관적 조건점수가 높고, 그 정도는 보건위생의 18점에서부터 적게는 경제생활의 1.5점의 차이까지 다양하였다. 그러나 영양생활은 이와 반대로 나타났고, 이외에 노동조건과 경제생활은 객관적인 상태와 주관적인 만족도의 점수에서 별 차이없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두 영역은 절대점수 역시 낮게 나타나 있어 역시 낮은 점수를 보인 여가생활 영역과 함께 농촌가정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6) 농촌가정의 생활의 질 수준

4가지 차원에서 측정된 결과를 종합하여 얻은 농촌가정의 생활의 질 수준분포를 보면 그림 7과 같다. 이 결과는 본 조사에서 이용한 모든 척도를 100% 완전하게 응답한 가구분에 한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316가구분의 자료만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농촌가정의 총체적인 생활의 질은 평균 57.7점으로, 55~65점 미만이 63.3%를 차지하는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중 최고수준은 73.9점, 최저수준은 39.8점이고, 비교적 정규분포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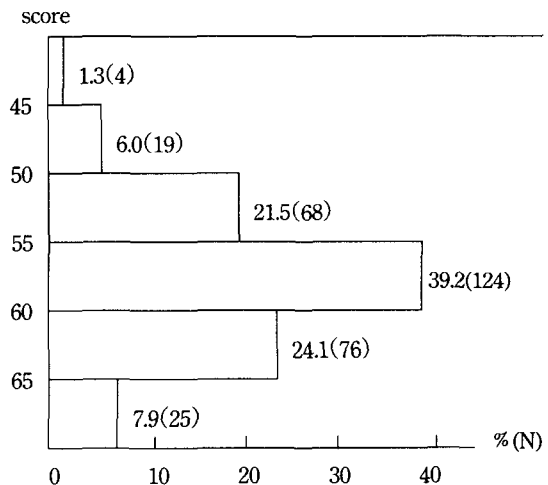


그림7. 농촌가정의 총체적인 생활의 질 분포

* 8개 영역중 1개 영역이라도 응답이 누락된 가구는 결측치로 처리됨.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농촌가정의 생활의 질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법으로, 농촌지역의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미시적 객관적 생활조건지표와 미시적 주관적 만족도지표를, 거시지표로는 살고 있는 마을의 객관적 생활조건지표와 이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지표를 개발,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미시지표에는 영양생활, 보건위생, 주거생활, 노동조건, 교육, 경제생활, 여가생활, 가족생활의 8개 생활영역에 관하여 객관적 척도를 구성하고 이 내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문항을 작성하였다. 거시지표에는 마을의 일반적 조건, 자연물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의 3가지 영역에서 객관적인 척도와 이와 관련된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제조사는 1992년 3월 16일 부터 4월 4일까지 사회조사의 경험이 있는 현지조사자들이 전국 9개 도 24개 시군에서 900명의 농촌거주가구의 주부와

그들이 사는 48개 마을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PC⁺로 빈도분포, 백분률,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이와같이 4차원을 복합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방법은 생활의 질 관련연구에서는 아직까지는 시도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것은 농촌가정의 총체적인 생활의 질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생활의 질적 측면에 있어 '건강을 지키며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고, 다음으로 '자녀의 성공'과 '화목한 가족생활'을 들고 있었다. 이것은 영역간의 가중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의 탐색적 시도였으나 본 연구에는 본격적인 가중화 작업까지 포함되지는 않았다.

2. 농촌가정의 총체적인 생활의 질 점수는 100점 만점에 57.7점이었고, 세부지표 별로는 거시지표로는 59.2점, 미시지표로는 56.2점으로 거시지표에 의한 생활의 질 점수가 약 3점 높았다. 분포를 보면 55~60점이 39.2%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3. 거시지표중 객관적 지표로는 64.5점, 주관적 지표로는 53.8점의 생활의 질 점수를 보였고, 미시지표로는 객관적 지표에서 59.0점, 주관적 지표에서 53.9점의 생활의 질 점수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만족도간에 상당 정도의 괴리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4. 거시지표로 본 생활의 질 수준은 55~65점 사이의 가수가 전체의 약 2/3에 해당하고 있었다. 이중 객관적 척도로 본 생활의 질은 다른 차원의 지표로 본 결과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이는 반면, 주관적 척도에 의한 생활의 질점수는 네차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농촌의 마을환경의 실제적인 수준에 비해 주민들의 주관적인 만족도 수준이 낮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5. 미시지표로 본 생활의 질 수준은 전체집단의 2/3가 60점 미만에 해당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중 객관적 척도로 본 생활의 질은 50~60점 사이에 40%나 분포되어 있고, 생활영역별로는 보건위생 영역이 70점대를 넘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영양생활은 가장 낮아

47점에 불과하였다. 대체로 영양생활과 여가생활면은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수준의 가수가 많은 반면, 보건위생면은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주관적 척도로 본 생활의 질은 객관적 척도에서 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생활영역별로는 59.4점인 가족생활 영역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객관적 척도로 평가된 영양생활은 8개 영역중 최하점이었는데, 주관적 만족도에서는 중간수준으로 올라온 데다가 점수도 54.4점으로 더 높았다는 점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도출하였다.

농촌지역의 생활의 질은 그 구성요소가 도시가구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했던 종합적인 접근 역시 상당히 어려운 연구과정이었다. 그러나 생활의 질 측정척도를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의 복합척도로 구성하고, 이를 다시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에서 각기 측정하여 종합코자 한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작업의 첫걸음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사용한 4가지 차원의 지표 및 각 척도는 척도점수로서의 신뢰도와 척도점수간의 상관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현상 및 사회현상의 변수 모두를 척도점수에 반영할 수는 없더라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 대한 검증과정과 정교화 과정이 후속연구에서 계속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척도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의 질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의 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노력이 행해져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부족한 가운데 정부기관의 사업목표로 등장하기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후속연구의 축적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한 실제로 측정된 생활의 질 수준은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과 농민들의 주관적 만족수준이 객관적 수준의 평가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의 질 평가 및 그 수준향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한다. 영양생활의 불합리성, 경제생활의 저수준과 농촌

주민들의 도시가구에 비해 상대적 열등의식 내지는 비하감은 갈수록 소외의 집단화 되어가는 우리 농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서 농촌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곽인숙, (1986), 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주거환경 지표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 161-182.
- 김동일 외 2인(1982), 한국 농촌주민의 삶의 질-사회지표 구성을 위한 종합적 연구,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 김동일, (1982), 농촌개발과 사회지표, 한국사회학 16집, 한국 사회학회
- 김명수, (1989), 삶의 질과 행정, 한국 사회복지학 14
- 김명숙, (1981), 한국인의 삶의 질에 관한 일연구, 이대 석사논문
- 김성근, (1991), 농촌 복지의 현황과 정책 대안, 석사논문
- 김성이, (1986), 사회지표 구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집, 성심여대 인간 및 사회복지 연구소 : 41-64.
- 김진국, (1984), 도시 생활의 질에 대한 분석, 부산대 석사논문
- 김해동, (1976), 한국 농촌생활지수 연구, 행정논총 14
- 문숙재, 정은숙(1985), 도시가정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3) : 149-167.
- 박용태, (1977), 생활지수의 측정, 행정논총 15권 2호
- 이기영, (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22권 3호
- 이기영, (1985),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인간생태학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권 2호
- 이영대, (1991), 사회지표로 본 농촌생활, 농촌 생활과학, 1991 추계호
- 이정수, 고경애(1985),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3(2) : 67-90
- 입병재, (1987), 농촌사회의 가족복지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석사논문
- 임 정, (1989), 주부의 가계복지 인지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논문
- 정명채, (1989), 영세농의 생활과 복지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보고 203호
- 정지웅, 최병익(1987), 농촌지역간의 복지수준 측정에 대한 사회생태학적 연구, 한국 농업교육학회지 19권 2호
- 조희금, (1986), 농촌주부가 인지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경상북도 지방을 중심으로-, 대구대 가정생활연구 1편
- 주학중, (1981), 사회지표의 체계와 활용, KDI : 31-60
- 주학중 외 9인(1987)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한국개발연구원
- 최경구, (1978), 한국 농촌 주민의 주관적 복지에 대한 일연구, 고대 석사논문
- 최병두, (1981), 지역사회 복지와 그 개선정책에 관한 연구-생활수준과 욕구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 최병익, (1986), 경제적 복지의 계량화 방안에 관한 소고, 예농 제6호, 예산 농업전문대학
- 최은숙, (1981), 농가의 질적생활 진단을 위한 지표의 책정 조사연구, 농촌진흥청
- 최은숙, 김인숙(1990) 농촌가정의 질 진단을 위한 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권 2호 : 87-100
- 한경미, 황덕순(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 69-82
- 한경혜, (1980), 농가의 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현오석, (1976), 생활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14(2) : 326-333
- 홍동식, (1983), 농촌부락에 있어서 복지수준의 사회구조적 관련요인, 사회조사연구 제2권 1호, 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영세농의 생활과 복지실태조

- 사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82) 사회 지표조사를 통한
남강 농업종합개발 사업평가(C82-7) : 22-
4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86), 통계지표로 본 도시와 농촌
의 사회경제 변동에 관한 연구(D39) : 6-9
-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88), 도시생활의 질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 Abbey, A., & F. Andrews(1985), "Modeling the Psy-
chological Determinant of Life Qual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 : 1-34.
- Adams, D. L.,(1969), "Analysis of a Life Satisfaction
Index", *Journal of Gerontology* 24
- Andrews, F. and S. B. Withey(1974), "Developing
Measures of perceived Life Quality", *Social In-
dicators Research* 1
- Archews, F., S. Withey(1976), "*Social Indicator of Well-
being*", New York : Plenew Press
- Bailey, A.,(1987), "Social & Economic Factors Affec-
ting the Financial Well-being of Families." *J.
of Home Economics*
- Bayless, M., Bayless, S.,(1982) "Current Quality of
Life Indicators", *American J.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41, No4 : 421-438.
- Bunge, M., "What is a Quality of Life Indicators ? ",
S. I. R., Vol. 2 : 65-79
- Cantrill, H.,(1965),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
New Brunswick, N. J. : Rutgers Univ. Press
- Carlin, (1973), "Economic Position of Farm Families
When Money Income and Net Worth are Co-
mbined." *Agricultural Economics Research*, 25
: 61-70
- Chamberlain, K.,(1988), "On the Structure of Sub-
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
- Denis F. Johnston(1988) "Toward a Comprehensive
'Quality-of-Life' Index", *Social Indicators Re-
search* 20 : 473-496.
- Drewnowski, J.,(1970),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s of Living & Welfare*", UNRISD Report
No. 70.3